

<봉헌과 감사의 기도>

(목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 모든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성령의 불로 교회를 연단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어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시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무덤으로부터 구하셔서 새로 난 새 생명을 주시니 우리가 기뻐합니다

(회중)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불꽃으로 우리에게 다시 세례를 베푸시고, 뜨거운 열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순교자와 성인들의 정신으로 우리를 감화시키고, 우리를 주님의 세계로 파송하셔서 능력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취하시어 주님 뜻대로 빛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파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탁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성령5/ "질그릇들의 오케스트라"

/ 출 31:1-6; 고전12:4-11; 록 22:24-27 >

✠ 교회소식 ✠

㉠ 예배

성령님이 일하시는 예배와 전도

내 힘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기쁨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친 영혼을 감동시키고 전도의 단힌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강림절 시리즈설교 "성령, 내 안에 시작된 새로운 세상"				
날짜	제목	구약	서신서	복음서
5월24일	내 안의 거룩한 침입	겔 36:25-27	고전 2:10-12	요14:16-18
5월31일	사랑하기에 아프게 찌르시다	속 12:10-13	살전 1:4-8	요16:7-11
6월 7일	가면을 벗은 영혼의 계절	사 32:15-18	갈 5:16-23	마 7:16-20
6월14일	길 잃은 세대를 위한 나침반	느 9:19-24	엡 1:17-20	요16:12-15
6월21일	질그릇들의 오케스트라	출 31:1-6	고전12:4-11	록 22:24-27
6월28일	아빠라 부르는 밤	율 2:28-32	롬 8:14-17	요15:26-16:3

㉡ 성령강림 후 넷째주일 성찬식 : 21일(주) 1·2·3부 예배시

㉢ 새가족교육 제3강 : 14일(오늘) 12시 40분, 2층 회의실 "교회와 신앙"

㉣ 모임

- 구역모임 : 14일(오늘) 2부 예배 후, 구역별 지정장소
- 한빛기도회 : 19일(금) 오전 11시, 기도실

㉤ 신앙 독서 나눔 "복음을 정확하게" :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소가재

- 대상 :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균형 잡힌 이해를 원하는 성도
- 문의 : 길석현 권사

㉥ 동시통역 안내 : 2부예배 시 영어·독일어 동시통역을 시작합니다.

㉦ 요양원 일제심방 :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이 빠짐없이 심방을 받으시도록 가족들과 구역에서 도와 주세요. 가능하신 날짜를 구역장이나 교역자들에게 알려 주세요.

㉧ 박옥주 파이프오르간연주회 : 20일(토) 오후 5시, 본당

㉨ 소허당 전시 : 김은실 개인전, 19일(금)-28일(주)

㉩ 식당봉사

- 14일(주) : 김연옥 황은영 / 김세운 박지윤
- 21일(주) : 전봉순 조성아 / 이성희 이형섭



1 부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길 잃은 세대를 위한 나침반"

요한복음 16:12-15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현대인들은 늘 후회와 실패를 두려워하며 극심한 '결정 장애(Decidophobia)'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마치 내 눈앞의 정답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초자연적인 내비게이션(GPS)처럼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만 아니라 "주의 선한 영(성령)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영적 갓나야기로 머물지 않고, 스스로 지혜를 분별하는 장성한 자녀로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인도하심은 미래에 대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성경)을 통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외부의 길을 정해주는 GPS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치관과 취향을 새롭게 빚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하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도 두려움의 안개를 뚫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소그룹 나눔 질문

- [결정 장애와 불안]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진로, 이직, 결혼, 비즈니스 등)의 갈림길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이 꼬여버리면 어떡하지?"라며 극심한 불안이나 결정 장애를 겪었던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나침반의 신앙]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매 순간 정답을 정해주는 GPS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항으로 가리키는 내면의 나침반을 심어주시는 역사"라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이 원하는대로 하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처럼, 내가 이번 주에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려야 할 선택은 무엇입니까?



성령강림절 후 셋째주일에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막1:15)

(목사)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12장 다 같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담대한 혀와 열린 귀와 새 신앙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주여, 고백하오니 우리는 성령의 힘을 가뉘 두었으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한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불타는 갈망으로 채워 주소서.

(3) 사죄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390장 다 같 이

<구약의 말씀> 느헤미야 9:19-24(739) 장금녀 권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서 말씀> 에베소서 1:17-20(310) 장금녀 권사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 씀 묵 상 > “나같은 죄인 살리신” 민동림 권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6:12-15(175) 정학재 안수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설 교> 『길 잃은 세대를 위한 나침반』 황영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정학재 안수집사

찬 송 384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